

## 영화 '다음 소희', 크레테유 국제여성영화제 수상



▲ 다음 소희의 한 장면. 사진=트윈플러스퍼트너스㈜

지나해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됐던 한국 영화 '다음 소희' (감독 정주리)가 제45회 크레테유 국제여성영화제 젊은 관객 부문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받았다.

크레테유 국제 여성 영화제는 1979년 첫 개최되어 매년 130명 이상의 여성 영화 제작자와 2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영화제로, 전 세계 여성 영화 감독들을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며 국제 여성 영화제 중 명성 있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정주리 감독은 2015년 '도희야' 수상에 이어 '다음 소희'로 젊은 관객 부문 최우수 장편 영화상 (Prix Graine de Cinephage)을 수상했다.

지난 4월 5일 프랑스에서 개봉한 '다음소희'는 현지 유력 언론 매체들로부터 "대단한 이야기, 거장의 한 방" (TELERAMA), "모든 기대에 반하는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야기" (JDD), "오라토리오 같이 아름답고 정갈한 영화" (LE CANARD ENCHAINE) 등과 같은 찬사를 얻으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이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로, 관객들의 입소문 호평과 강력 추천이 이어지면서 2023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첫 10만 관객 돌파라는 쾌거를 이뤄낸 작품이다.

## 한국 작품 12편, LA웹페스트 초청

12편의 한국 드라마가 세계 최대 웹 시리즈 영화제 'LA웹페스트 2023'에 초청받았다.

지난 25일 'LA웹페스트 2023' 집행위원장인 강영만 감독에 따르면 150편의 출품작 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신병', '오! 영심이' 등 한국 드라마 3편이 장편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인생 파업을 선언한 자발적 백수 여름(설현)과 삶이 물음표인 도서관 사서 대범(임시완)의 험포 찾기 프로젝트를 그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4개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웹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 원작이다.

숏폼(짧은 영상) 부문에서는 '소정의 세계' (상주시 웹드



▲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포스터. 사진=tvng.com

라마와 '어느 날 소나기' (목포시 웹드라마)가 동시에 작품상과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다.

중편 부문에서는 '고양이 밥' (베스트 스타일러)과 '마이 플랫폼메이트' (베스트 스케치 코미디)가 노미네이트됐다.

이밖에 '학교 밖 괴물' (베스트 단편) 등 세 작품과 '고희정, 한복을 말하다' (베스트 다큐멘터리 & 리얼리티) 등 두 작품도 수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시작된 LA웹페스트는 2018년 5월 창립자 마이클 아자키가 세상을 떠나면서 잠정 중단됐다. 강 감독이 지난해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강 감독은 5년간 LA웹페스트를 이끈다.

'LA웹페스트 2023'는 5월 4~5일 로스앤젤레스 반스 달 갤러리 극장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5일 오후 발표된다.

## 앤젤리나 졸리, 아들과 국민만찬 참석



▲ 백악관 국민만찬에 참석한 앤젤리나 졸리(왼쪽)와 아들 매덕스. 사진=로이터

배우 앤젤리나 졸리(47)가 아들 매덕스(22)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국민만찬에 참석했다.

지난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국민만찬에 초청된 앤젤리나 졸리는 흰색 봉드레스에 크림색 빈티지 재킷을 걸치고 등장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매덕스가 함께 했다.

피플지는 이날 졸리의 측근을 인용해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이들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졸리와 아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라면서 "아들 매덕스는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졸리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주의와 난민 옹호, 그리고 예술가로서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이 국민 만찬에 참석하게 돼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덕스는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이다. 2019학년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합격해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졸리가 아들을 위해 학교 근처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소식도 화제가 됐는데, 월세를 내지 않는 한국의 전세 제도에 놀라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매덕스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들" 이라고 답했다.

1470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9에 있습니다)

9	1		5		2	
			4	2		3
	2		1	6		
		9		4		5
6				5		7
	8	7		3	9	
					6	5
2			6	8		
		1			8	2

### 2023년 세금보고 시 중요 포인트

개인 및 사업체세금 | Payroll Tax | 회사설립 | 각종연금 IRA 가입

1. Child Tax Credit : 16세 미만 자녀 \$2,000(Refundable: \$1,500)
2. Child & Dependent Care Credit(탁아소 비용) : Max \$3,000/1인, Max \$6,000/2인 이상
3. Earned Income Credit(저소득층) : Max \$6,935(3자녀), \$3,733(1자녀), \$560(무자녀)
4. Saver's Credit(은퇴연금) : Max \$2,000(부부), Max \$1,000(Single)
5. Lifetime Learning Credit(대학교 재학) : Max \$2,000
6. American Opportunity Credit(대학 학비) : Max \$2,500/1인
7. Residential Energy Credit(주택 에너지) : \$500 (ex. Solar Panel)
8. Student Loan Interest(학자금 대출 이자) : Max \$2,500
9. 전기차 Credit : Max \$7,500(제조판매 한도 충족차량 제외)

**탑프라이어티 TAX 714.661.8376**  
신진(Jin Shin) 공인세무사/EA 14730 Beach Bl. #213, La Mirada